

특화작물시험장

담당자 : 김종환, 김영진, 안수용, 송윤호

(033)339-8800, sangreen@korea.kr

누룩치 직과 방법별 발아율

1. 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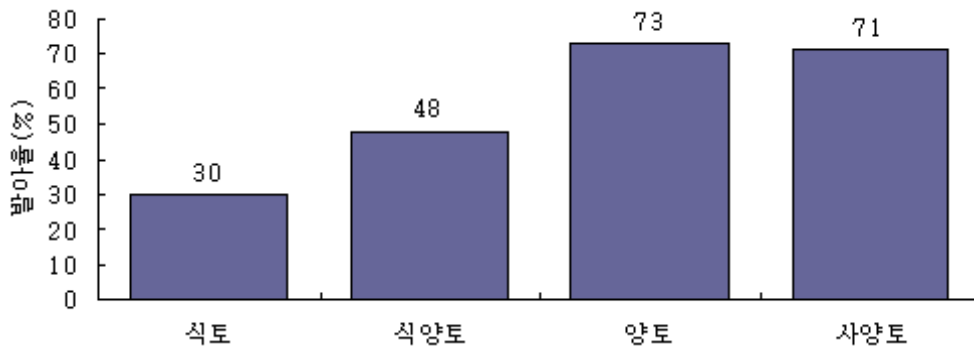
- 누룩치는 이식 활착율이 낮아 재배가 어려우나 직과 재배시 생육이 양호하고 병해 발생을 현저히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음
- 종자는 미숙배로 기존 종자 번식기술은 발아 조건이 까다로워 농가 단위에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 - 종자 발아 조건 : 5℃ 습사처리 120~150일 처리후 20℃에서 발아

2. 연구결과 ('07~'08)

- 노지 직과 방법별 발아율(%)

구분	파종방법			발아율 (%)
	채종시기	파종시기	처리내용	
관행	8월하순 (갈숙기)	10~11월	◦ 노지 파종 복토	32
개선	8월중순 (황숙기)	8월중순	◦ 토양수분 유지 및 지온 상승 방지위해 파종 복토후 75% 2중 차광망으로 지상부 피복 ◦ 이듬해 3월 하순경 차광망 제거	73

◦ 토성별 발아율(%)



3. 기대효과

- 농가의 번식기술 애로 해결로 농가 소득 제고

4. 적 요

- 누룩치는 이식 재배시 적응성이 떨어져 병해 발생 및 생육 지연 심함
- 관행 노지 직파시 발아율은 32% 정도로 낮아 재배에 애로
- 노지 직파시 발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
 - 8월 중순 황숙기 채종 즉시 파종하여 75% 2중 차광망을 파종상 위에 피복하여 토양 습도 유지 및 토양의 고온 방지
 - 피복 차광망은 이듬해 3월 해동시 제거
- 누룩치 노지 직파시 발아율은 토성에 따라서 차이가 큼
 - 양토, 사양토에 파종시 71~73% 발아되었고 식토에서는 발아율 저조

5. 유사 영농활용기술과의 차이점

- 없음

<세부연구결과성적>

◦ 누룩치 년생별 추대율(%)

구분	1년생	2년생	3년생	4년생	5년생
추대율(%)	0	1	40	54	5

◦ 채종 시기 및 파종 시기가 발아에 미치는 영향

채종시기	파종시기			
	8월중순	9월중순	10월 중순	11월 중순
8월 중순	73	58	38	35
8월 하순	56	42	32	32
9월 상순	30	25	23	22

◦ 파종 시기 및 토성이 발아에 미치는 영향(%)

파종시기	토 성			
	식토	식양토	양토	사양토
8월중순	30	48	73	71
9월중순	25	40	58	51
10월중순	20	25	38	30
11월중순	23	25	35	30